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성탄 대축일
제32권 5호(나해) 2011-12-25

[묵상]



그리스도의 탄생<15c, 헤르트헨, 내셔널 갤러리, 런던>

한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이
이 땅에 오시어 저희 가운데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께서
오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어
무디고 나약한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의 따스한 빛을 비추십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위로의 빛으로
비천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해방의 빛으로
실패 속에 좌절한 이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슬픔 속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기쁨의 빛으로
구세주 그리스도 오늘 나셨습니다.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하느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오신
놀라우신 신비 앞에 경배 드리며
성탄의 은총과 평화가 온 누리에 퍼지도록
은 세상과 함께 천사의 목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樞-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사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 (썩수달 4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전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밍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성탄 밤 미사

(12월24일, 밤 9시)

구유예절

시작 전 해설

말씀 봉독 : 이사야 예언서 55,1-13

입당 전 해설

아기 예수 입당 행렬

아기 예수 구유에 모심과 구유축복

- 촛불봉헌 - 성수축복 - 분향

아기 예수 경배와 구유예물 봉헌

미사

제1독서 이사야서 9,1-6

화답송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제2독서 티토서 2,11-14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니,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복음 루카 2,1-14

영성체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밤미사 성가

입당 : 137

봉헌 : 146, 141

영성체 : 135, 137

퇴장 : 142

성탄 낮 미사

(12월25일, 오전 9시30분, 오전 11시)

온 세상이 고요히 잠들어 있을 때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경축해야 할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사신

강생하신 신비의 참 뜻을 새깁시다.

제1독서 이사야서 52,7-10

화답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집안

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제2독서 히브리서 1,1-6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거룩한 날이 우리를 비추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큰 빛이 땅위에 내렸네.◎

복음 요한 1,1-18<또는 1,1-5.9-14>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낮미사 성가

입당 : 146

봉헌 : 143, 148

영성체 : 102

퇴장 : 142

성탄은 사랑과 나눔의 축제

어린 시절 성탄절 이브 저녁에 동생과 함께 머리맡에 양말을 두고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우리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잠자는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고 간다는 전설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안방에 건너가 큰 양말을 몇개 더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 양말 속에 선물이 꼭 찰것이라는 기대를 가득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막상 양말 속에 선물이 없자 동생이 우리 집 굴뚝이 너무 좁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못 들어왔다고 투덜거렸던 기억이 마치 어제 같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늘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하느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무한하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아주 약하고 가난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의 축제만이 아닌 모든이, 특히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잔치로 지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도 콜카타의 빈민들의 거리에서 온 생애를 바치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이 인상적입니

다.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가난과 고통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 놓인 가난과 고통은 개인적인 탓도 있겠지만,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힘 있는 나라는 약한 나라를, 가진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 그레고리오 성인도 “가난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선물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나눔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이들이, 내게는 필요 없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더 필요한 이들과 나눌 때 더욱 풍성한 나눔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나눔의 삶이 일회성이 아닌 일년 내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성탄 밤미사	성탄 학생 미사	성탄 낮 미사
해설자	정미영 미카엘라	이호미 엘리사벳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현자 안나	이순자 비비안나	황지영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송년 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학생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낮미사
해설자	최진수 에우세비오	신덕레 테레사	채승희 에스티
제1독서자	김교복 레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강혜원 아네스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례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예수 성탄

평화의 임금이신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 성탄 대축일'입니다. 말씀이신 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의 은총과 평화가 온누리에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 매일미사 중에서 -

- ◆ **송년미사 및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
31일(토) 밤11시30분(오후 7시 미사 없음)
-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2012년 1월1일(주일)
오전 9시30분 한국어 미사, 오전 11시 낮미사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설립

뜻있는 본당 교우가 장학기부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에따라 새해 2012년부터 백삼위 장학회를 설립합니다.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 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로 교회봉사와 학교성적 우수한 학생
- 수혜인원 : 매년 8~10명
- 신청기간 : 2012년 4월1일~2012년 5월15일
- 장학금 지불일 : 2012년 8월1일 이후
- 신청서 : 2012년 2월1일부터 사무실에 비치
- 문의 : 본당 신부님

◆ 새해(2012년/임진년/나해) 본당 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 한국가톨릭교회의 역사와 문화계 성당을 주제로 한 2012년 본당 달력을 교우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 전례력, 독서, 복음, 축일, 절기 등을 담은 새해 달력은 신심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24일 성탄 밤미사 후부터 배포(가정당 2부씩)
- 달력제작에 도움을 주신 광고후원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명섭 미카엘(명섭)치과, 플라자 약국, 모든 집수리전문,

이코노 자동차종합정비, 익재한의원, A-One Auto Center, Steeline, 수호친사보험>

- ◆ **요셉회 음식봉사에 영적/물적 도움주신분들 고맙습니다.**
신비의 모후pr. 빈첸시오 회원들, 사도들의 모후pr. 송종두 요한, 김대우 비오, 김옥 안토니오, 권태만 실베스테, 이병우 마리노, 신중철 아브라함 - 요셉회 일동 -
- ◆ **안나회 동전 모으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봉헌내역 : 2011년 주일미사 전후 본당 안나회가 봉사한 불우이웃과 장애인 돕기 동전모으기 바구니에 총 \$1,935.93를 넣어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본당 빈첸시오회와 LA 다운타운에 있는 작은 예수회, LA대교구 은퇴수도자기금에 나누어 각각 전달됩니다.
- ◆ **본당 성령기도회 모임 매주 목요일로 환원**
● 성경통독으로 그동안 토요일로 바뀌었던 본당 성령기도회 모임이 매주 목요일 8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 기도생활은 우리 신앙인들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문의 : 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 **예비자 수요일 교리반 휴강 안내**
● 휴강일 : 12월28일, 1월4일
● 개강 : 1월11일(수) 오후 8시
- ◆ **백삼위 서예반 '서경회' 회원모집**
좋은 취미생활로 아름다운 노후에 활력을 주는 서예- 관심있는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 모집대상 : 한글반, 예서반(한문) 사군자반
● 지도 : 박태홍(일호 : 한국예총 미주서예가협회 회장)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25일(성탄대축일) : 소공동체(떡과 과일 나눔)
- 1월1일(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 친교자리 없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강지혜	강태홍	구자운	권오상	김광자
	김병태	김양금	김우용	김원호	김정순	김정엽
	김찬구	김형순	나정흠	문두현	민경근	박기돈
	박봉성	박완철	박주현	반비오	신현화	안민수
	안태갑	오현희	유근태	육근주	이관용	이귀란
	이민상	이병우	이상철	이영미	이우성	이윤무
	이제정	장정진	전시웅	정명모	정순석	정혜영
	정훈모	조소영	조준제	최이원	최희태	한연만
	한혁수	황지영	박제이콥	합계 : \$5,695		

미사헌금 : \$2,718 주보/달력 광고후원 : \$1,200(감사합니다.)

성전헌금	강태홍	구자운	권오상	김광자	김양금	김우용
	김원호	김정순	김정엽	김찬구	김형순	나정흠
	민경근	박기돈	박봉성	박주현	반비오	신현화
	안민수	안태갑	오현희	유근태	이귀란	이민상
	이병우	이상철	이영미	이우성	이윤무	이일길
	이제정	장정진	정명모	정순석	정혜영	정훈모
	조소영	조준제	최이원	최희태	한연만	한혁수
	황지영	박제이콥	합계 : \$4,595			

감사헌금 : 안종현 석순영 박이레네

공지사항

◆ 주일학교/한국학교 겨울방학

- 12월25일(성탄대축일)/1월1일(천주의 성모마리아대축일) 두주일, 수업 없습니다.
- 학생마사(오전 9시30분)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2011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오늘 주일(25일) 마감합니다.

- 넉넉잡은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오늘 주일(25일)까지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오시면 올해 본인이 봉헌한 헌금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십자가의 길' 기도문 공용 비치

- 지향에 따라 주제가 다른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공용(성당 비품)으로 비치하여 두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새로 건립한 '야와 십자가의 길'에서 기도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비치장소 : 성모상앞 돌의자 사물장, 사무실
- 주제 : ♡성경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김수환(목상)/장익(염음) 십자가의 길 ♡청소년이 바치는 십자가의 길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남가주 소식

◆ 예수회 성경대학 2학기과정 안내

- 일시 : 2012년 1월 6,7,8일 오후6시30분~9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본당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 수강료 : 1일 \$20, 3일 \$50
- 문의 : ☎(213)249-3603 고영희 데레사

◆ 성 아그네스 성당내 이나시오 카페 오픈

- 커피 감정사인 LA 아그네스 성당 최대제 신부가 기도와 기도를 통합시킨 커피를 만들어 냅니다. 아그네스 성당에 오시면 핸드드립 커피를 드실 수 있고 로스팅 된 원두커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323)731-4433

◆ 이나시오 성인 영신수련 4박5일 침묵피정

- 일시 : 2012년 1월11일(수)~15일(주일)
- 장소 : Marywood 피정센터(오렌지카운티)
- 피정지도 : 이인주 신부(예수회)
- 참가비 : \$380(독방), 선착순 20명
- 주최 : 미서부지역CLC(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야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해경 올리아나 920-5153	지경수 마태오 972-8292 12/9(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2/10(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2/16(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야가토 619-7763	박근식 마카엘 316-7608 12/10(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12/12(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엄영숙 마리아 373-5662 12/9(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12/8(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12/9(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정동호 하상바로 780-9055 12/23(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서창호 바로로 257-1784 12/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야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도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2/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377-2228 12/9(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식 크리스토퍼 377-7063 12/9(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2/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에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2코린 6,16)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히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희망과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모든 인류에게 닫혀 있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탄은 우리 인간에 대한 무한한 하느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가장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은 “인류 공동체”라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온 인류가 서로 영향을 깊이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온 인류가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우연히 서로 모여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원천으로 인식하고 하느님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면 평화로운 인류 건설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사람들로 구성된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사회 공동체도 그 주체와 목적이 인간이어야 합니다.(사목 현장 25항).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보다 더 앞선 가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전에 비해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의 산업화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 비인간화가 거리낌 없이 성행되는 개탄할 풍조에 휩쓸려 살면서 인간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인 가치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인식하는 한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집단과 개인의 권리 주장, 집단적 이익 추구에 더 몰두하게 합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자세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을 가져오며 상호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 먼저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고통 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어떠한 생명도 소외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봉사와 기부, 나눔의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부터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절감하고 국민 전체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참봉사자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가치관이 혼란스런 시대일수록 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교회는 단순한 전례나 신앙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이(마태 5,13-16) 되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이 사회 안의 어두운 곳을 찾아서 어둠을 없애고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할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사회를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이가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랑 가득한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성탄의 은총이 이 시대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내리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